

## 자료①-1/미국 CEAL 총회 참가 우리 협회 관계자 발표문

대한민국 도서관의 현황과 미래<sup>1)</sup>

한 상 원(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 1. 대한민국 도서관의 현황

지금 대한민국 도서관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도서관으로서의 제 위상 찾기 몸부림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은 1945년 해방 이후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도서관은 21세기에 이른 지금에서도 대부분 지식과 자료의 제공 기관, 문화와 교양의 마당으로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시민의 대학' '민중의 대학'이 아니라 입시와 취업을 위한 개개인의 개인적 목적에 이끌려 단순히 공부를 위한 시설만을 제공하는 역할, 즉 공부방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방 이후 미국의 문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도입되었음에도 정작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도서관 문화는 전혀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한국 도서관계의 현실이다. 그렇게 50년도 넘는 시간을 보내왔다.

현재 한국 도서관계의 가장 큰 화두는 어린이도서관이다. 공부방 기능을 벗어나 진실된 의미의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던 차에, 2002년부터 한국도서관협회가 문화운동 및 출판계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온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의 한 결과물로, 2003년 한 방송국과 함께 전국에 모두 12곳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인기 연예오락프로그램의 형태로 추진한 때문에 갑작스럽게 도서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어린이도서관 건립운동을 공식적으로는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기적의 도서관'을 통해 도서관계의 기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에 주목한 것은 어린이도서관은 원천적으로 공부방 기능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점과 소규모로도 건립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건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기적의 도서관'이 한국 도서관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과도한 공부방 역할,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도서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3곳에 아름다운 도서관이 만들어져 지역의 새로운 문화명소가 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2004년에도 모두 9개의 도서관이 추가로 지어져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1년 동안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이제 한국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새롭고, 아니 정확한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1)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에서 개최된 2004 미국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CEAL, Council on Asian Libraries) 총회 일정 중 3월 4일 개최된 한국학분과위원회(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meeting) 세션에서 우리 협회 한상원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임.

그러나 이러한 대중적인 도서관 건립운동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즉 시민들은 마치 별도의 어린이도서관 건립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 같은 착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도서관 개혁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협회는 도서관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올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존 공공도서관에 좋은 어린이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리모델링’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2003년 추진했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시작된 독서운동을 한국에서도 적용해 보기 위한 시범적인 사업이었다. 그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어서 올해 여러 지역에서 이 운동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기적의 도서관’을 주도했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영국의 경험을 도입한 ‘북 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서 여러 측면에서 도서관 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는 공공도서관 발전과 함께 학교도서관 분야의 발전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사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교육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 동안 주로 주입식으로 진행되던 학교수업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도서관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사실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던 학교도서관을 살려내자는 시민운동이 먼저 있었다. 교사, 학부모 단체는 물론 문화 및 출판계, 도서관계 단체들이 모여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드디어 학교도서관이 교육정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개년 계획으로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여 한국 학교도서관의 기초를 만드는 일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도서관을 만드는, 즉 하드웨어 갖추기에 치중하고 있다. 사서교사의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분간 사서교사 배치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문제가 한국 도서관계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또 다른 시민단체인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라는 곳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특히 학교현장의 다양한 교사 그룹이 참여하고 있어 사서교사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다.

한국의 도서관계는 미국의 도서관들이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최근에 도서관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도서관을 다른 형태의 기관으로 바꾸어버리는 명칭변경, 공립의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문제, 사서 또는 사서교사의 부족현상,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과도한 공부방 역할,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 갑작스럽게 또한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평생교육 역할 등등..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한국의 도서관계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수단을 통해 21세기 한국을 새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지식기반 시설, 문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아마도 2006년 서울에서 국제도서관협회 연맹 대회를 유치한 것이 그러한 노력의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마지노선 구축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 2. 한국 도서관에서의 한국학 진흥 지원 상황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도서관이 세계 각국의 한국학 진흥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다른

나라 한국학 진흥 지원에 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한다. 아마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도서관은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일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5년부터 해외 한국학연구소 및 주요 도서관에 한국관련문헌을 지원하여 한국학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19개국 43개처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도서관을 비롯해서 대학도서관 13곳, 공공도서관 2곳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은 세계 각국의 주요도서관 및 학술연구기관과 출판정보, 정부간행물 등 구입이 어려운 자료를 상호교환으로 수집하며, 국제기구간행물을 기탁 받아 이용자의 조사·연구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교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94개국이고 모두 284개처에 이른다. 특별협정에 의한 교환도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966년부터 한·미정부간행물 교환협정에 따라 미국의회도서관과 정부간행물 전량을 상호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독일국립도서관과는 자국 발행 상대국 관련자료를 교환하는 협정을 맺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한국 내에서의 한국학 자료들을 손쉽게 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도서관계는 디지털도서관으로의 빠른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상당량의 한국학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보실 수 있게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은 물론 서울대학교의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그리고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 한국학의 핵심연구기관 등은 모두 소장 또는 발간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 도서관 등에서 국내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복사해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한국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한국어 또는 영문책자를 영문으로 소개하는 웹 사이트([www.booksfromkorea.org](http://www.booksfromkorea.org))도 개설되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CEAL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국학 관련한 많은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미 상당히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라고 생각되어 이 정도에서 그칠까 한다.

### 3. KLA와 CEAL/한국자료분과위원회의와 협력 프로젝트 구상

이번 미국 방문과 CEAL의 한국자료분과위원회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지원할 한국학 발전에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내 도서관을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에 미국내 한국학 도서관들에서 일하는 여러분들과 어떤 점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협력이 가능할 것 같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잦은 만남이다. 이번에 우리가 미국을 방문한 것처럼,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종종 한국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우리 협회는 매년 9월 전국도서관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가 42번째이다. 작년 제주대회에는 장재용 선생께서 다녀가셨다. 재정이 마련된다면 아예 도서관대회에서 이번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한국학 도서관 관계자들과 한국내 도서관에서의 한국학 관련 사서들과의 만남의 자리는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번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임에 한국의 도서관 사서들의 참여 확대도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협회에서는 그 문제를 더 많이 고민해 보겠다. 물론 이런 구상은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다. 한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충분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관계기관과 의논해 보겠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교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우리 협회 담당자와 여러분들의 대표가 상호 일상적인 정보교류는 물론 쌍방의 간행물(우리 협회에서는 월간으로 《圖書館文化》를 발간한다.)에 기고하는 등의 일상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미 이번 《圖書館文化》 2월호에 이효경 선생께서 CEAL을 소개하는 글을 주셨다. 그 글로 한국의 도서관 사서들이 CEAL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로서는 미국 도서관계의 동향이나 한국 사서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셨으면 한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도서관계는 큰 변화의 시점에 있는데, 그러한 변화의 추진에는 미국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 다만 혹시 이러한 정보나 자료의 교류에 있어 지나치게 큰 불균형이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은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한다.

공동으로 한국학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연구나 프로젝트 추진과 CJK에 관한 연구나 프로젝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디지털도서관 분야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과 미국내 한국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국의 중요한 자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 그러한 일을 꾸준히 추진함에 있어 이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 내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부문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할 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끝으로 현재 남북한 문제, 특히 문화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몇 년 전에 일본과 평양에서 북한의 인민대학습당 총장을 만난 적이 있고, 그 후 영국 글래스고와 베를린에서 열린 IFLA 대회에서도 만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북한 도서관계의 만남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 평화정책의 한 부분으로 문화, 특히 도서관 교류의 시급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남북한 도서관 교류를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도서관협회 모두에게 큰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4.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시작

이번에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다. 2006년 IFLA 서울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한국의 도서관계가 국제무대에서 아직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내 동아시아학 전문가들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 한국의 도서관계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과 '도서관' 이라는 두 축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서로 다양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간다면 한국도서관협회와 CEAL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한다.